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열매를 보아 알리라 (마 7:15-23)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Matt. 7:15-23)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못된 나무이고,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16절).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two trees appear: a bad tree and a good tree. Can you tell with certainty which tree is good or which tree is bad? You only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v. 16)?

What kind of fruit do we bear in our life?

1.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서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 신안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간도 떼어줄 것처럼 사랑으로 포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1. Be careful for false prophets

After Jesus finishes His Sermon on the Mount, He says,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What is the trait of a false prophet? A false prophet who wears sheep’s clothing approaches us. Outwardly, we cannot distinguish a false prophet, but in the long run, we will recognize him by his fruit.

Meanwhile, a lot of heresies occurred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we also have many cults such as the unification church, and other religious and new world orders. Nevertheless, their common point is although we may think they come to us with love of their wrapped lever, inside they are nothing but plundering wolves.

2.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잘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 이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여 언급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나뉜다고 하십니다.

22절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제 역할을 감당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였습니다.

좋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요 15:8).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 받아 마땅한 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만의 하나라도 우리의 이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이름의 열매를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 You must distinguish a good tree from a bad tree well

After Jesus said,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He also pointed that the comparison between a good tree and a bad tree. And he even compares those who have confess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to be distinguished between a good tree and a bad tree.

Prophets in verse 22 prophesized, drove out demons, and performed many miracles in His name. Though they did not deny Jesus, they used Jesus name and took profit.

What is the trait of good trees? You bear much fruit and give your glory to God (John 15:8). One of the celebrities in the Bible who deserves to be greatest and respected is the Apostle Paul. But he himself said that he was the worst among the sinners. He gave all glory to God.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seat of judgment. We must at least look back on whether we bore fruit in our name, or only looked to our fruit.

3. 우리는 최상품의 나무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사 5:1-2)를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어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을 갈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시어 좋은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을 팠지만 결국에는 나쁜 포도, 곧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십니다. 들포도가 맺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 We are the best tree

While we read the prophet Isaiah’s vineyard song (Is. 5:1-2), we recognize that God planted the finest vineyard, ploughed the soil, removed pebbles, made a watchtower to stand high above to help the trees grow, and erected a press to squeeze grapes for wine when it bore good grapes. But, at the end, He sighed at the bad grapes that grew, in other words, wild grapes. Why were the wild grapes born? In short, the wild grapes revealed their disobedience to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최고급 열매를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만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마 7:19).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 받으시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God’s chosen people and the finest grape trees which must bear grapes. If we do not bear good fruit, every tree is cut down and thrown in to the fire (v. 17).

The chance given to us is never etemal. At the time when we do not think, we may stand before the seat of God’s judgment.

By obeying God’s word, using yourself only for His glory, and bearing abundant fruit,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winning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2012 사명자대회, 승전 보고
 VIP 카드작성 - 총 5,400여명
 VIP 초대 새생명축제 결신자 - 286명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주)까지 계속된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12 사명자대회 승전 보고가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특히 이번 사명자 대회 기간중 있었던 『VIP 초대 새생명 축제』가 은혜 중에 이루어졌다. VIP카드 작성은 총 5,400여명이며 이들 중 VIP 초대 새생명 축제에 초대된 인원은 619명이다.

그리고 11월16일(금)~11월18일(주일) 3일간 이루어진 VIP 초대 새생명축제를 통해 결신을 한 VIP는 286명이었고 우리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64명이다.

또한 24시간 릴레이기도에 참석한 연인원은 4,486명이며 7주간 동안 이루어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특별새벽기도회” 참석 연인원은 5,049명, 사명자대회 마지막 주에 있었던 특별새벽기도회 연인원은 1,440명이다.

새생명 축제 기간에는 못 나왔지만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VIP들이 많을 것이다. 계속 영혼구원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대림절 待臨節
the Advent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추수할 때를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기독교인다운 삶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이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된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2일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한다.

-편집부-

2013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2013년 교회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1. 교회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마 25 : 40, 례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2. 송구영신예배 : 2012.12.31(월) 23:00~2013.1.1(화) 00:30
3.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 : 1.3(목)~4(금) 09:30~17:00 시편~예레미야
4.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칭지기수련회) : 1.7(월)~1.12(토) 05:00
5. 순결서약식 : 3.31(부활주일 찬양예배 시)
6. 향azon지(장로, 집사, 권사)선거 : 5.19(주)
7. 성지순례 : 9.23(월)~10.2(수) 터키
(8월말부터 출발 전까지 매주 1시간씩 강의)
8. 학습세례식 : 주일 1·2·3부 예배 시
9. 새벽기도회 : 5시30분 정각에 시작
10. 엘리베이터 안내위원 배치 : 주일 1·2·3부 예배 시
11. 도서실을 주일 오후 2~5시 어린이 사용 공간으로
12. 교육12국(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서별 예배 신설 : 주일 09:00
교육3국(청년1, 2부) 부서별 예배 신설
- 주일 13:30~15:00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시작
13. 신혼가정부 : 미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4. 1, 2 권사회 명칭순서 변경 : 청년1, 2, 3부를 연령순서별로 구분하듯이 권사회도 현 1권사회를 2권사회로, 2권사회를 1권사회로 변경한다.
15. 1, 2스데반회를 스데반회로 통합
16. 새가족 등록 필수과정 수료 후 4주 과정의 직분자 필수 과정 신설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주차문화

우리교회는 강남구청의 협조를 얻어 주일예배시간에 삼성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양체 주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하고 있다.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일 삼성로 주정차 시 버스정류장 표지 전후각 10M씩,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된다.

스데반회 연합총회

12월 6일(목) 오후6시 101호

제1·2스데반회(1회장 : 최규초 집사, 2회장: 이동만 집사)연합총회가 12월 6일(목) 오후6시 101호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스데반회원 전원은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

권사회 정기총회

12월 5일(수) 오후1시 101호

제1·2 권사회(1회장 : 남태순 권사, 2회장: 김선영 권사)연합총회가 12월 5일(수) 오후1시 101호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권사회 회원정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

감 사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24시간 기도 릴레이에 참여하고 VIP를 열매로 바친 이들, VIP초청 새생명축제와 새벽 조찬을 준비하고 안내, 교통정리를 도우신 여러분께 감사,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나의 하나님

思母曲

박노철 목사

너무도 갑자기 천국으로 가신 나의 어머니 김옥희 전도 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하셔도 늘 소녀의 수줍음과 기쁨의 미소를 간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칼이나, 핏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사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 옛날 폐병 4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십자가의 광선으로 고침을 받으시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분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 분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과 딸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갈 때, 집안 어른들이 서양도 믿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긴다고 야단하실 때, 20대 중반의 여인으로서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그토록 사랑해 주던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도로 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할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교회가 없는 송천동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8명 식구들이 간신히 누워 자는 쪽방을 팔아 바치실 때, 남편이 그리고 여덟 식구의 앞날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잘 드시던 분이 하나님께서 3주 금식, 40일 금식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주 안에서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핏박과 환란이 몰려 올 때마다 이런 찬송을 눈물로 부르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핏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통통 부어서 코끼리 다리 같은 다리를 쓰담으시며 “그래도 이 두 발로 전도하며 주의 일 감당했다”고 소녀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좋아하시던 어머니. 전화 통화하다가 툭툭툭툭 하시던 어머니, 혹시 감기 걸리신 것 아니냐고 걱정이라도 할 때면, “난 괜찮다. 나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하시며 오히려 못난 아들의 건강 걱정하시던 어머니.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라도 있으시면, 그렇게 자녀들의 편전을 받으시면서도, 기여코 현금하시고, 어려운 분들도 우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셨던 어머니.

토론토 소망교회에서 정해놓으신 오후 3시 그리고 새벽 3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셨던 어머니. 도대체 그곳에 앉아서 어

떤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셔서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마음껏 호도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너무도 급하게 천국으로 가셨으니 뒤에 남은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을 동동 굴러서라도 다시 모셔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아니 정 안 되면 하루만이라도 그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 품에 안겨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과분한 분이셨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흠바닥에 누워 뒹굴어 보기라도 하련만...

그 천사를, 그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로 옆에 모시고 살면서 마치 언제나 계실 것 같은 분으로 함부로 대했던 일들이 생각나 가슴에,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이 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기에,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어머니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김옥희 전도사님, 이제 편히 쉬소서. 더 이상 이 못난 아들 걱정, 딸들 걱정, 막내아들 걱정, 교회 걱정,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한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히 쉬소서.

평생 다른 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토록 사모하시던 예수님, 아버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하시던 어머니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 그분의 품에 안겨 그 특유의 환한 소녀의 모습으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소서.

행여 열 두 진주문과 황금길 지나, 그 푸른 생명강가에 앉아 계시다 요즘 부쩍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남편 박준옥 장로님을 만나시면, 그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끝도 없이 펼쳐진 꽃들 속에서 기쁨의 춤을 추소서.

이 못난 불효의 아들, 이제 더욱 어머니가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주께서 오라하시면 어머니처럼 “아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명자 대회

VIP를 향한 나의 사랑



박이선 권사(9교구)

2012년 10월 7일 사명자대회가 시작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전도’에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VIP초대 새생명 축제’ 소식을 듣고 VIP 대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1명, 2명, ... 모두 32명의 VIP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 중 10명의 등록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70인전도대 축호전도팀원들과 VIP명단을 공유하며 모일 때 마다 350명의 VIP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VIP를 향한 5단계 사랑의 섬김이 시작되던 날, 화분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VIP 대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교회 앞 혼수이불집 사장님 내외분의 차가운 거

절, 다시는 오지 말라며 문을 굳게 닫은 의사 가족, 정성껏 준비해 간 선물을 끝내 거부하는 아기 엄마, 수많은 아픔과 좌절이 있었으나 VIP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은 5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들을 잡고 울기도 하였고, 짝사랑하는 연인처럼 마음은 타들어갔으나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섯 번의 선물과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와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VIP 새생명잔치에 모두 10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초대에 응답하지 않은 VIP도 잊지 않고 인내하며 전도하고자 합니다.

초청받은 VIP 모든 분들이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길 기도드리며 VIP 새생명축제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자 대회

7주간의 기도와 응답

오치열 집사(사명자대의 차장)

금년도 사명자대회는 이사가 51장3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 50일 동안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 사명자대회 기간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을 작성하고 그 기간중 “기도”를 위하여 온 성도가 자율기도로 24시간 릴레이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도가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참여하여 어느 때보다 참여도가 높아 아름다운 “기도탑”을 완성하게 되었다.

더욱이 7주간의 온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이어져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사명자 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주를 특별새벽기도회로 준비하여 부목사님들의 헌신을 다하는 명 특강을 듣고 마지막 토요일은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매주 토요일기도회의 대단원의 막을 이루게 되었다.

“전도”는 사명자대회 기간 중 내내 전도에 힘을 쏟아 11월 16, 17, 18일에 3차례의 “VIP초청 새생명축제”로 그 대미를 장식하였다. 처음 계획한 513운동 즉 5000명의 VIP는 5400명을 품게되었고 1000명의 방문자는 약 500명의 절반의 VIP가 방문하였고 300명의 결신자의 계획은 286명의 결신자를 보게 되었

다. 이를 위하여 온 교구위원 식구들 특히 각 다락방들의 헌신과 70인 전도대의 무한 도전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다.

50일을 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어느 가정은 토요일 집회에 짧은 사과로 1000개를 익명으로 후원하였고 VIP초청 잔치에 집회를 이끄신 분들과 초청잔치와 특별새벽기도에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회와 피택권사들 그리고 안수집사들의 헌신적인 참여는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다. 교회의 사무국과 식당, 주차, 기타 관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부장:윤석원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송재일 집사의 지휘로 "주 나의 모든것", "성자들의 행진", "크리스마스 축제"등 8곡을 합주와 앙상블로 연주하며 오르간에 김윤지선생, 피아노에 김양언선생, 타악기에 윤중현선생, 클라리넷에 임범창 집사, 해금에 고요한 선생이 협연한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3일(월) 서울장신대 2학기 수업을 종강한다.
 - 전사회: 13교구 김정미 집사, 벨기에 Planders Expo Gent, Booth No: L-431, 11월30일~12월4일
 - 수상: 허주란 집사(15교구) 한국행총서예대전 대상
 - 주간식당봉사: 퇴직전도회(12.2) 마리아전도회(12.9)
 - 금주의 식사: 박노철목사 김은경사모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송재일 집사(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지휘자)

추수 감사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 무엇보다 전 세계인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의 달 12월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왔습니다. 오색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거리는 벌써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격려 덕분에 올해도 제 3회 정기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주회를 2012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과 아울러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청아한 종의 선율 속에서 고요히 흘러나오는 해금의 어우러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모든

것”, “성자들의 행진”으로 1부 무대가 채워지고 핸드벨과 차임이 조화를 이루는 “장미꽃 위에 이슬”, 노예 생활로 힘든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흑인 영가 모음”으로 이루어진 2부 순서가 5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진 앙상블로 연주 됩니다. 마지막 3부 무대는 “천사들의 노래가”, “노래하자 크리스마스를”과 같이 크리스마스 찬양들로 12월의 시작, 성탄 축제의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한 손에 종 3개씩을 들고 연주하는 6 in hand 주법을 비롯한 새로운 핸드벨 연주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평일이나 주일, 새벽이나 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 하였습니다. 부디 오시어 기쁨과 평화,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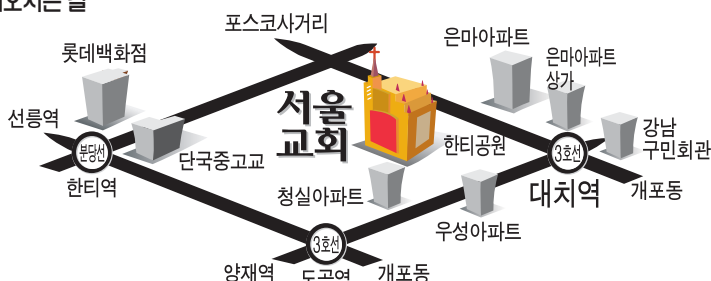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2. 각 위원회와 부서를 섬길 청지기 임명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2013년도에 바뀌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숙지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더 큰 부흥을 담는 새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